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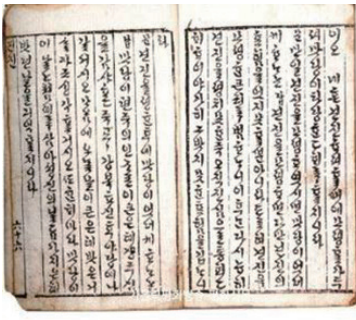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19세기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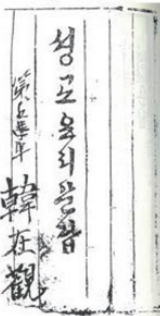
-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2021년) 내용 소개와 보완 -

필자는 2021년에 집필한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공저, 서울역사편찬원, 2021년 3월)을 새롭게 수정·보완해서 『상교우서』 독자와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호부터 위의 글 중 3~4절 부분과 새로 보완할 내용을 정리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위의 글 ‘3-2절 서울 목판인쇄소의 운영과 천주교서적의 유통 (2) 목판인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위의 글 ‘3-2절 (3) 간행된 천주교서적의 종류와 수량, 배포 지역’의 내용에 대해 두 번에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성교요리문답』 (1861년 간행)



『천주성교공과』 (1862년 간행)

### 서울 목판인쇄소의 운영과 천주교서적의 유통

#### (3) 간행된 천주교서적의 종류와 수량, 배포 지역 [上]

\* 2021년 글(242~249쪽)에서 각주와 일부 인용문을 제외했고, 한자와 추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밑줄로 표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간행된 천주교서적의 종류에 대해서는 서적 간행을 주관한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가 작성한 서한, 인쇄소 주인 최형의 심문 기록, 현존하는 목판본 서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베르뇌 주교가 1864년 8월 18일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그 시

점까지 8종 13권의 책이 간행되었는데 그중 4권이 1864년에 간행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다음 해인 1865년에는 3권을 더 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베르뇌 주교가 제목과 내용을 설명한 8종 서적의 원제목과 권수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성교요리문답(성교요리문답)』 1권, ② 『턴주성교공과(천주성교공과)』 4권, ③ 『턴주성교례규(천주성교예규)』 2권, ④ 『신명초행(신명초행)』 2권, ⑤ 『회죄직지』 1권, ⑥ 『영세대의(영세대의)』 1권, ⑦ 『성찰기략(성찰기략)』 1권, ⑧ 『주교요지(주교요지)』 1권으로 모두 13권이다.

앞의 1절[2월호 4쪽]에서 『성교요리문답』이 1861년에, 『천주성교공과』가 1862년에 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최형의 추국 진술에서도 『천주성교공과』가 1862년에 그의 집(순청동 인쇄소)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주성교예규』의 간행 연도에 대해 통설에서는 1865년으로 보았으나 다블뤼 주교가 1863년 9월 13일 부모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1862년에 이미 간행되어 천주교 장례예식에 활용되고 있었다.

지난 (1862년) 가을에 저는 또 한 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상도 지역) 교우들을 방문하러 가야 했습니다. ... 상장례예식서[천주성교예규] 출간 이래로 그 남쪽의 모든 지역에서 비신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그것을 실행하는데, 그것이 많은 고장에서 성공하여 입교자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이 좀 더 거친 다른 곳에서는 그것이 천주교인들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어요.

[지정환 판독, 유소연 번역, 2018,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내포교회사연구소, 408쪽.]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베르뇌 주교가 간행 순서대로 서적들을 열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영세대의』, 『회죄직지』와 『성찰기략』의 목판본을 보면 속표지에 “천주강생[서기 1864년 갑자 부주교[부대목구쟁 안 안토니[다블뤼] 저술, 감독[대목구쟁 장 시메온[베르뇌] 감준]이 명기되어 있다. 베르뇌 주교가 1864년에 간행되었다고 한 4권이 『회죄직지』, 『영세대의』, 『성찰기략』, 『주교요지』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1862년에 간행된 『천주성교예규』와 1864년에 간행된 『회죄직지』 사이에 위치한 『신명초행』 2권의 간행연도는 1863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1908년에 중간한 활판본 『신명초행』의 속표지에는 ‘1864년(갑자) 신간’이 명기되어 있어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65년에 간행되었을 3권의 책에 대해서 베르뇌 주교나 다블뤼 주교의 서한에는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현재 남아 있는 1860년대 목판본 중 『성교절요(성교절요)』 1권과 『주년첨례광익(주년첨례광익)』 1권(4권 중 제1권)이 1865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설에서 1864년에 간행되었다고 한 『천당직로(천당직로)』가 1865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1864년 또는 1865년에 간행된 『천당직로』 목판본은 확인되지 않으며, 1884년 활판본부터 남아 있다. 이 활판본에는 초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과연 1884년 이전에 간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1865년에 『주년첨례광익』이 2권(4권 중 제1~2권)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블랑 신부의 1882년 2월 22일 서한도 있기 때문에 『천당직로』가 1865년 이전에 아예 간행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1864년까지 8종 13권, 1865년의 간행 예정 서적 3권까지 합치면 최대 11종 16권이 1866년 교육(敎

獄, 천주교 박해) 이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간행된 천주교서적의 종류와 권수가 명확하지 않지만, 간행된 서적의 총 수량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대략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1년 전(1861년)부터 우리가 보급한 책이 4,000권이 넘습니다.

[베르뇌 주교가 1862년 11월 4일에 홍콩 대표부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269쪽]

(최형의 진술) 책의 이름은 ‘성교일과(聖教日課)’인데, 4년 전(1862년)에 저의 집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며, 3권 1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찰기략(省察記略)’이 있는데, 1권 60여 장으로 되어 있으며, 역시 목판으로 간행하였습니다. 『성교일과(천주성교공과)』 책은 3천여 질을 간행하였고, 『성찰기략』은 1천여 권을 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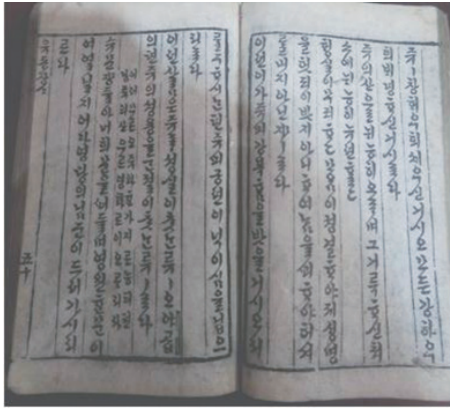
[『추안급국안』, 병인년(1866) 1월 17일 최형 1차 추국; 『추안급국안』(역주본) 85, 63~64쪽.]

베르뇌 주교가 1862년 11월에 작성한 서한에 의하면, 1861년부터 2년간 4,000권의 서적을 신자들에게 배포했다. 당시 교리서와 기도서인 『성교요리문답』(1책)과 『천주성교공과』(4책)는 물론 『천주성교예규』(2책)까지 포함된 수치이겠지만 서적마다 몇 권씩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신자들이 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사제를 만나 성사를 받을 때 꼭 필요한 교리서와 기도서가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서적당 간행된 부수에 대해서는 최형의 의금부 진술이 유일한 자료이다. 위의 진술에 따르면, 1862년부터 1865년까지 4년간 『천주성교공과』(3책 1질)\* 3천여 질[9천여 권]을 간행했고 1864년에 처음 인쇄된 『성찰기략』은 2년간 1천여 권을 간행했다. 두 서적을 합쳐 4년간 1만여 권을 간행한 셈이다. 적어도 1책당 1년에 500권 이상 간행된 것이다.

\* 베르뇌 주교가 열거한 서적 목록이나 현존하는 목판본을 보면 『천주성교공과』는 4권이 1질인데 최형은 3권이 1질이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진술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80년대 목판 인쇄를 담당했던 최우정이 『천주성교공과』 1~3권을 간행하고 제4권은 이웃의 최공필이 판각했다는 기록[『최 바실리오 이력서』, 『순교자와 증거자들』, 236~237쪽]을 보면, 전체 기도서 내용 중 부록이라고 볼 수 있는 제4권을 제외한 1~3권을 한 질로 인식하여 간행하고, 제4권은 다른 인쇄소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형은 1861년부터 목판인쇄를 했기 때문에 1861년에 간행했을 서적(성교요리문답)의 수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최형 인쇄소 한 곳에서만 1만여 권 이상을 간행했으므로 1862년부터 확인되는 다른 인쇄소(임치화의 창동 인쇄소)도 1만여 권 이상을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1864년 이후로 건립되었을 세 번째 인쇄소도 적어도 수천 권의 책을 간행했을 것이다.



『천주성교예규』(1862년 간행)



『성찰기략』(1864년 간행)

이와 같이 서울 목판인쇄소에서 간행된 서적들은 바로 신자들에게 배포된 것이 아니라 대목구장인 베르뇌 주교덕으로 보내졌다. 인쇄소를 처음 세울 때부터 베르뇌 주교는 자신의 표기(標記, 감준 표시)가 없으면 배포를 불허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자신이 모든 간행된 서적을 감수한 다음에야 신자들에게 보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목구장이 천주교서적의 간행과 보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대목구장의 감수 확인이 끝난 서적들은 주교덕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직접 신자들에게 책을 배급할 책임자(서적 판매자)의 집이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기 전에 보관을 맡은 중간책임자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서적의 구체적 배급 과정과 담당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반면 베르뇌 주교의 지시로 책을 운반했던 하인의 진술과 선교사제의 보고 서한을 통해 배포 과정과 배포 지역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좌우포도청의 보고) 이선이(李先伊)는 그 집 사랑에 붙어서 묵고 지내는 사환(使喚, 심부름꾼)입니다. 책을 거래하는 길이었는데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좌포도청등록』, 병인년(1866) 1월 좌우포도청 보고]

베르뇌 주교의 하인이었던 이선이는 포도청 심문에서 배교를 선언한 다음 자신이 베르뇌 주교의 지시로 서적을 운반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천주교서적을 운반했던 곳은 자암(현재 서울 중구 봉래동 일대)의 정의배 집과 창동의 임치화 집이었다. 정의배(마르코)는 서울지역의 회장으로 1861년 창동에서 자암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선이에 의해 운반된 천주교서적은 정의배를 통해 서울 지역 신자들에게 판매·배포되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2호, 3월 31일 간행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